

## 9월 道 농수산물 수출 ↑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2억7447만 달러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  
4.0%의 3.9배로 전국 3위  
가공농식품 등 증가폭 커

전북 농수산물 수출액이 전국 평균의 4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국 3위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9월(누계) 전북 농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2억7447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 4.0%의 3.9배로 전남(17% 증), 경북(15.8% 증)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

전북도 올해 수출 목표액은 2019년 대비 10% 증가한 3억4000만달러로 이 같은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올해 수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류별로는 가공농식품(38.5% 증)과 축산물(20.3% 증)의 증가폭이 컸으며, 신선농산물은 2019년도에 종작으로 전년 대비 많이 생산된 양파(167만 4000 달러, 262.0% 증)를 해외시장으

로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3.4%가 상승했다.

전년도부터 꾸준히 수출 증가세인 가공농식품(1억4013만3000 달러, 38.5% 증)은 면류(5119만8000 달러, 41.4% 증)와 패푸드(1453만9000 달러, 45.0% 증)를 중심으로 전북 수출액(2억7447만1000 달러)의 51.1%를 차지하여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물(2188만7000 달러, 20.3% 증)은 닭고기(1438만2000 달러, 43.1% 증)가 주요 품목으로, 홍콩으로 최고 기(62만1000 달러, 16.8% 증)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산물(8896만9000 달러, 5.5% 감) 주요 수출국이던 태국으로 마른김(4319만1000 달러, 26.1% 감)수출이 감소세인 반면, 중국, 베트남으로의 수출 대상국이 확대되고 있으며, 조미김(3777만8000 달러)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약간의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대만 등이 증가세를 보여 13.1%가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현황을 보면, 중국이 전북 농식품 수출 1위로 면류(2973만 8000 달러, 52.8% 증)와 기타농산가공품(797만2000 달러, 81.9% 증) 그리고 기타수산물(490만9000 달러, 698.0% 증)의 수출 증가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전년도부터 파프리카

(651만2000 달러, 10.4% 감)는 감소세를 보이나, 패푸드(934만3000 달러 23.638% 증)가 수출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현지 작황이 좋지 않은 마른김(1147만7000 달러, 45.6% 증)도 수출이 증가해 수출국 2위를 유지하고 있어 한·일 갈등으로 인한 영향은 아직 크게 감지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마른김 수출이 선적 일정 조정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태국으로의 수출은 3391만3000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1% 감소했으나 미국보다는 아직 뒤처지지 않아 수출액 기준 수출국 순위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반중 시위의 장기화로 수출이 감소세인 홍콩(654만5000 달러, 15.3% 감)은 패푸드(49만7000 달러, 15.495% 증)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목이던 비스킷(239만9000 달러, 11.5% 감)의 지속적 감소로 러시아(692만2000 달러, 11.4% 증)에게 밀려 8위의 자리를 양보하고 9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역환경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아 녹록하지 않은 환경에서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우리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개척의 노력을 더욱 공격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29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19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대상 토론 훈련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토론기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재난 대비 현장대응 강화

### 전북도,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현장 훈련 앞서 상황 전개에 따른 자율토론

### OCI 군산공장서 유관기관 등 참여 현장 훈련

전북도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OCI(주) 군산공장에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북도, 군산시, 환경부 합동으로 OCI(주) 군산공장에서 수소 탱크 크랙으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가정한 복합 재난 상황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토론기반훈련을 실시했고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긴급 재난 상황 대응능력을 점검했다.

이날 토론훈련은 그동안 도지사 주재의 진행방식을 벗어나 상황 전개에 따른 부서 간 자율토론 방식을 통하여 진행함으로써 복합재난 발생 상황에 따른 부서 간 협업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오후에는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OCI(주) 군산공장에서 소방서,

경찰청, 전북지방환경청, 35사단,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22개 기관·단체 관계자 및 주민 등 350여명이 참여하는 현장훈련이 진행됐다.

소방헬기·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인명구조를 실시하며 풍향을 가정해 유해화학물질인 사염화규소 누출에 따른 주민대피를 실시함으로써 대형복합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재난관리지원 공동활용시스템(DRSS)을 활용한 실제자원 이동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지자체간 협업을 통하여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도 실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다양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를 경각심, 그리고 평소 훈련으로 습득한 신속하고 습관적인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11월 8일까지 계약심의회원 후보자 공개모집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비상설 기구로서, 경영, 회계, 계약, 토질, 구조, 시공, 일반전기(송전선), 관공개발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심의회원 후보자 공개모집은 각 분야의 심의회원 명단(Pool)을 구성하기 위한 공개모집이다.

공모 참여희망자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이메일, 우편, 팩스, 직접방문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번에 선발된 심의회원은 2020년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계약의 체계 확립과 선진화된 계약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올 여름철 풍수해로 전북도내 30억원 재산피해 발생

### 도, 복구비 188억원 투입 용자금 15억원 간접 지원

전북도는 올해 태풍3회, 집중호우 2회 등 5번의 풍수해로 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로 부상자 2명과 사유시설은 주택피해 14동(파손10, 침수4), 농작물 침수 및 도복 2만357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가로수 전도 1337주, 도로 5개소, 방파제 1개소, 하천제방 2개소, 산사태 5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다.

재해 기간별로는 지난 6월 29일 호우로 남원지역에 주택 1동이 파손됐고, 7월 27~28일에는 정읍, 순창, 부안지역에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4동,

농작물 259ha 침수로 1억 4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피해로는 올해 발생된 19개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7개이며 그 중 제13호 태풍 링링,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 등 3개가 우리 도내에 영향을 줬다.

주요 피해로는 농작물이 가장 많았으며 2만3000ha의 벼도복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전체 벼재배면적 11만2000ha 중 20%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주택 9동 파손, 방파제 및 도로 2건 등 총 2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 복구비로 188억원이 직접 투입되며, 간접 지원으로 용자금 15억원도 별도 지원된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자 2만8689세대에게 181억원이 직접

지원되고, 간접 지원으로도 용자금 15억원이 지원된다.

용자금은 피해자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에 용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공시설은 가로수 1337주, 하천제방 피해 등은 즉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도는 항구복구가 필요한 군산 어청도 방파제 복구에 3.9억원과 장수군 지방도 비탈사면 복구 2.3억원, 기타 소규모 시설 3.8억원 등 복구비 10억 원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